

第113回(定例會)

#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3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1年 7月 6日(金) 10時02分

### 議事日程(第3次 本會議)

1. 區政質問의 件(繼續)

### 附議된案件

1. 區政質問의 件(繼續) ..... 1面

(10時02分 開議)

○議長 金以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區政質問의 件(繼續)

○議長 金以煥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회의규칙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종로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오전 일괄 질문과 오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오전 일괄 질문과 오후 일괄 답변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문하실 시간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서는 제한 규정시간을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접수된 순서에 따라 安載弘議員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載弘議員 종로구 구기동·평창동 출신의원

安載弘議員입니다. 언제나 묵묵히 20만 종로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金以煥 議長님, 金正大 副議長님, 先輩議員님, 同僚議員님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름다운 종로 가꾸기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鄭興鎮 區廳長님과 盧張鏞 副區廳長님! 그리고 각 국장님, 과장님들과 많은 종로가족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재실시된 지 어느덧 10여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와 민원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만족 요구의 정도는 어느 대기업의 홍보 카피처럼 고객의 행복과 고객의 감동의 수준 이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종로 자치구 역시 이와 같은 주민들의 행정수요의 만족 정도를 주민 감동의 수준을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와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합니다.

쓰레기의 처리 문제는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 할 것입니다. 어제에도 많은 선배·동료의원들께서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중복을 피하며 질문을 드립니다. 쓰레기 적환장이나 상하차장의 위치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평창동 지역과 종묘공원 옆

의 상하차장 문제는 통합된 대규모 쓰레기 처리시설의 필요성을 중장기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장님께서도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시와 협의하여 대형 상차장을 마련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낙산 시민아파트 철거부지의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에 종로구의 의견을 듣기로 되어 있다면 공원 조성 시에 환경 친화적인,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쓰레기 대형 처리시설의 건설 문제 등을 심도있게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운동 시민아파트의 철거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 후의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대형 시설의 건립을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역시 상당히 많은 음식점들이 있으며 하루 100여 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 40톤은 톤당 약 6만 1,000원의 비용으로 푸른환경에서 처리하고, 25톤은 33평 이상의 사업장이나 100가구 이상의 집단주택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축산농가 등에 처리를 위탁하고 나머지 약 35톤의 음식물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와 섞여서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쓰레기 정책과 관련한 어떠한 대책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 감소를 위한 자치구의 중장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우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1조제1항 각호에 의하면 정화조는 0.75km<sup>2</sup> 기준 약 1만 7,680원 초과 0.1km<sup>2</sup>마다 1,17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분뇨는 18ℓ 당 226원으로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화조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1만 1,000ℓ의 차량의 경우 그 최고액이 15만원에서 16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례에 의한 금액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화조 관련회사들은 조례의 근거에 의한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직원 마음대로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수수료와 관련 흥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화조 청소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부와 동부지역으로 나눠 작업하고 있는 독점적 정화조회사들의 횡포에 대한 2000년 감독 및 행정지도 내용을 밝혀 주시고,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민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과 서부의 정화조 회사 운영체제를 2개 회사 이상의 경쟁적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저렴하고 개선된 정화조 청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청소행정과 관련한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위탁수거 방식의 확대를 주장해 왔습니다. 물론 그 확대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위탁방식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폐기물의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양이 감소하는 것은 재활용품 수거가 부진하다는 의미이며 쓰레기 감량 대책이 실효가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발생의 저감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평창동 387, 380, 460, 470, 480, 560, 570번지 일대와 구기동 170번지 일대의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종로구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80% 정도입니다. 종로구 구기동과 평창동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종로 평균치의 15% 미만대인 65% 정도입니다. 구기동과 평창동의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보급률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현행 도시가스 보급규정의 문제점과 민감한 관련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현행 도시가스 규정과 도시

가스법은 도시가스 사업자로 하여금 가스의 요금과 공급 조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그 승인을 광역시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서울시장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제출한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기초로 해서 매년 3월 말까지 당해년도를 포함한 2년 간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을 수립하여서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를 포함한 2002년까지의 종로구 가스공급 공사계획의 발표 내역은 무엇인지 소상히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하면 인근 배관으로부터 신규 보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서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m당 25가구에 미달하는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신청장소가 상하수도나 하천, 암반 등 지역이 특수해서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도 가스공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면 세검정지역이나 일부 지역에 암반이 많은 지역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며 또한 단독주택 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에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주민이 가스공급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관련규정에 의해서 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부담제도를 부활하고 수익자 부담이 가능하다면 주민의 부담으로 공급관로의 설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수요자가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공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100m당 25가구를 5가구나 10가구를 축소해서 100m당 15가구 또는 20가구로 수정해서 지역에 맞도록 개정하도록 해서 주민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공급규정의 개정 여부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배심원제도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주민들의 행정요구 및 주민의 권익 보호가 증대되면서 행정청에서 적법하게 행한 행정처분

을 사업주와 인근 주민간 이해 대립 등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집단민원의 발생은 상호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행정기관 및 행정행위의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의회는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건축조례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법령과 함께 조례에 의해서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입니다. 라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단 한 번도 운영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의 내용이나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양당사자간의 이해를 구하고 갈등을 해소시키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본 의원은 민원배심원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바입니다. 최근 저희 구에서 야기된 주민들과 건축주의 민원은 약 1년간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배척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웃과 이웃이 갈등과 반목을 해야 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과 모순 때문이라면 그러한 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사례로 평창동의 납골당 시설을 위한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상 적법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인 잘못은 없으나 그 시설 자체가 주택가 내부에 위치함으로써 상당한 민원을 야기하고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납골당의 설치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납골당 시설 등의 확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설은 제한적인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민원배심원제도를 도입해서 주민과 주민간 자치단체와 주민간 갈등과 불만, 민원을 해소해나갈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러한 민원배심원제도의 도입을 위하여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건축가, 행정전문가, 법률전문가, 직능의 대표를 초빙해서 당해 민원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와 현장의 확인, 양당사자간의 주장 청취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민원배심원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 상징물과 문화 캐릭터의 개발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9년과 2000년 그리고 오늘 또다시 종로구의 CI(Corporate Identity) 즉 종로구 문화 1번지라는 이미지에 걸맞는 지역 통합이미지의 개발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이 로고와 관련된 캐릭터 개발은 어제 선배의원인 신홍기(申起瑞)議員께서 제안하신 1동 1회사의 계획과도 상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발된 종로구의 로고와 캐릭터를 관내 제조회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관내 제조회사들은 종로구의 통합이미지와 로고, 캐릭터를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화인프라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종로구의 특화된 로고와 캐릭터를 사용한다면 커다란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를 창출할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 종로구가 문화 1번지라는 데에 공감하는 것은 많은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어서 전통문화의 중심지라는 생각과 화랑, 미술관, 공연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이 종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적합한 로고와 캐릭터를 구민들이나 시민들에게 공모하여서 주민들이 구정에 대한 관심과 일체감을 가져서 문화 1번지 종로구의 명성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종로구의 상징과 로고, 캐릭터 개발은 문화의 세기에 걸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 발주의 모든 공사의 품질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한 품질관리에 대해 제대로 된 감독체계를 갖추자고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구정질문 시 건설백서의 제작을 청장님께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우리 각 과의 시설비나 공사와 관련해서 그 공사의 품질 향상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11월 공원녹지과에서는 종로구 구기동에 약 80주의 왕벚꽃나무를 가로를 따라서 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 약 35%에 해당하는 22주의 벚꽃나무가 말라죽었습니다. 물론 다시 하자보수를 통해서 보식하였습시다라는 이와 같은 일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스콘 덧씌우기의 경우 표준시가 시방서는 그 두께가 5cm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실제로 시공하는 것은 3cm나 4cm 정도에 불과해서 실제로 아스콘 덧씌우기 이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보기 흉하게 바닥이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건설관리기본법 등 관련 건설기본법에 의해 하도급이 불가하게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 발주공사의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점검결과를 보면 관공사의 기본은 민간공사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안전관리 등은 더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제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관공사의 신뢰도와 안전관리의 실효를 위하여는 이러한 감독체계를 제대로 갖춰서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에 품질을 향상시켜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의 품질 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의 실익도 있다고 생각되며 현재에 관련 직원들의 공사감독 등의 업무가 폭주하여 제대로 된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감독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와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감독체계 정비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미래가 밝은 것은 여러 공직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점진적, 개혁적인 자세와 의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20만 주민을 대표하여 공직자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모든 직원들은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安載弘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宣相善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相善議員 안녕하세요? 종로의 관문 송인

2동 출신 兪相善議員입니다. 종로구의회 의원 18 명의 수장으로서 의회의 위상 제고에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옵는 金以煥 議長님! 오직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구민의 편익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金正大 副議長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종로구 20만 구민의 삶의 질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복이 샘솟는 아름다운 종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25시 구청장이라는 별호를 가지신 鄭興鎭 區廳長님과 행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盧張鐸 副區廳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방청하여 주신 송인2동 주민 여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가뭄에서 촉촉이 내린 단비가 우리의 걱정을 덜어주나 했더니 예외 없이 찾아온 장마로 홍수피해나 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와 같이 고락을 함께 하고 구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다 어느날 갑자기 홀연히 우리의 곁을 떠나가신 故 崔康洵 議員의 명복을 머리 숙여 빌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건축법에 의하면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으로 분류하여 공동주택 관리령에서 정한 관리규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요즘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차문제, 청소문제, 제설문제 등 제반 문제 해결이 제도상 태두리 내에서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마는 20세대에서 1가구만 빠진 19세대 이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하여 단독주택으로 적용받게 됨에 따라 청소문제나 제설, 주차문제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19가구 주민의 양심에 따르고 있어, '내 집 앞'은 없고 '우리 집 앞'만이 있어 「내 집 앞 청소, 제설은 내가 합시다」라는 행정구호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 골목 골목마다 무단 주차차량이 일반 차량은 물론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는 주택가 슬럼화의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사실을 구청

장께서는 고뇌해보고 심도있게 검토해본 일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공금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종로구의 2001년 예산액은 약 1,600억원이고 재정자립도는 70% 정도로서 구의 재정 여건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鄭興鎭 區廳長께서는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발전시켜왔고 특히 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으로 연간 10여억원의 재정수익을 거두고 있음은 괄목할 만한 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區廳長님 이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재정 개선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은 군포시에서 공금관리시스템에 성공하여 대한매일에 발표한 바 있는 현금 흐름관리 및 투자전략 전문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 예산 중 구 금고에 일시 예치된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구 금고 예치자금의 이자 재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실례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96년도 예산은 1,000억원 대였고 예산서에 반영된 이자수입은 4억원 정도였습니다. 당해년도 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기 계신 존경하는 千相旭 議員님과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 금고 자금 예치방법을 달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었고, 구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그렇게 이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후 '98년에는 예산규모가 1,200억원으로 예산은 20% 증가하였으나 이자수익은 4억에서 11억원으로 무려 2배 이상인 275%가 증가한 선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포시에서 운영하는 현금 흐름관리 및 투자전략 시스템을 잘 비교 연구하여 단 한푼의 재정수입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동기능 전환에 따른 동의 주민조직 관리의 미흡 및 행정불편 가중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거 동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2000년 7월 1일부터 동직원의 상당수를 구로 배치하고 동기능도 대폭 구로 이관한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대다수 주민들은 행정이 구로 이관되기 전보다 훨씬 불편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서울의 동사무소 모태는 동회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민들이 구청에 출입하는 것이 불편하고 주민 가까이에서 행정서비스를 빠른 시일 내에 받고자 하는 주민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이 행정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발전시킨 제도였으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동기능 전환은 정반대로 주민의 가까이 있는 구청을 오히려 멀리 떼어놓는 결과이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복지센터 기능은 일부 문화를 지향하는 주민만이 이용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다수 주민들이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동기능 전환이 되기 전에는 동사무소에 통담당제도가 있어서 어느 통 어느 골목 몇 번지에는 누가 살고 그 집에 세사는 사람은 누구이며, 무허가건물인지 다세대인지 단독주택인지 등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어 최일선 신경조직으로 살아 움직이는 조직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기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대신할 국가 일선조직도 없는 상태가 되고 말씀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주민의 불편분야나 신경조직의 취약요인 등에 대하여 고뇌해 본 적은 있으시며 이를 상부기관에 문제점으로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종량제봉투 미사용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 4월 공영방송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일부 상가지역 등에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를 환경미화원이 묵인하여 처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개인이 착복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구청장님께서도 그 보도를 보셨거나 그러하다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청소행정 및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여 쓰레기량을 줄이지는 쓰레기 종량제 처리제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례로 상가지역이 대부분인 우리 종로구에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우리 구 관내 동대문시장, 종로통 각종 음식점 등에서 이러한 사실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듣고 있는데 그러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이에 대하여 암행조사나 여론청취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이러한 사안에 대한 근절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쓰레기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중 가장 큰 문제인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쓰레기 증가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야겠다는 시민의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무단투기가 심하여지고 지능적으로 되어서 적발은 곤란하고 골목마다 늘어만가는 무단투기 쓰레기를 치우기 위하여 동 직원과 행정차량까지 동원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본 의원은 쌓여만가는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청소 기동차량을 불러 미화원과 같이 직접 수 차례에 걸쳐 쓰레기를 치운 바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구의원이 쓰레기를 치워야 하고 동네 골목마다 다니면서 무단투기 쓰레기가 있는 곳을 파악하여 치워달라는 전화를 해야 합니까? 전화를 해서 장소를 알려주면 즉시 수거라도 하면 이해가겠습니다마는 몇 번씩 전화를 해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쌓여만 가고 주민의 언성은 날로 높아만 가는데 이것

이 우리 종로구의 청소행정의 현주소란 말입니까? 최소한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청소대행을 직영으로 하고 구역할당제를 하든지 아니면 무단투기를 할 수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대로 청소행정을 한다면 아름다운 종로를 만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던 그 결과의 공적인 시민만족도 1위, IMC-텔레포퍼먼스 그랑프리, 공공행정부문 ISO-9001 인증 획득, 세무행정 1위 등 무려 11개 분야에서 최우수구 및 우수구로 선정되었던 치적들이 청소행정 하나 잘못으로 묻혀져 버리고 공염불이 된다는 것을 구청장님께서 깊이 인식하시고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나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인터넷 여론광장 사이트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다양한 여론수렴을 목적으로 인터넷 여론광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이것이 당초 설치 취지와는 달리 타인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허위사실 유포 등이 다소 있어 구민에게 구정의 단면이 잘못 투영됨은 물론 조직 구성원간의 반목과 질서를 조장하는 등 역작용도 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할 대책은 없는지 또한 인터넷 여론광장에 게시된 건전한 구정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은 6가지 질문을 마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金以煥 議長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鄭興鎭 區廳長님! 盧張鐸 副區廳長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고 이끌어 주신 승인2동 주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옥체 강건하심과 가정마다 행복이 샘처럼 솟아오르고 웃음꽃이 들꽃처럼 만발하는 날이 영위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宜相善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吳弼根議員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弼根議員 전통과 젊음이 살아 숨쉬는 해화동 출신 吳弼根議員입니다. 존경하는 金以煥 議長님! 金正大 副議長님! 그리고 1991년 초대 때부터 지금까지 종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오신 3선의 선배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행복이 샘솟는 아름다운 종로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鄭興鎭 區廳長님! 盧張鐸 副區廳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항상 힘과 용기를 주신 해화동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번째 질문으로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을 촉구합니다. 종로구에서는 비공식적인 위원회를 제외하고도 43개의 많은 공식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잡 다양해진 주민들의 행정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자문을 얻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이들 위원회를 형식적으로만 구성해놓고 몇 년이 지나도록 회의 한번 열지 않는가 하면, 모처럼 회의를 개최해도 외부 위원들에게 사전에 심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공과 업무숙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외부 참석 위원은 구색을 갖추기 위한 들러리로 만들어 집행부 의도대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결과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되면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내린 결과에 따라 처리하였다는 바람막이로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 결과 지출된 예산이 2000년도에 회의수당으로 2,884만원, 운영비로 418만원이 지급되어 결국은 주민의 혈세인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43개의 위원회 중에서 42%인 18개 위원회가 2000년도에 단 1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 구성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구색만 갖추기 위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당연히 폐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며, 운영실적이 있는 위원회 중에서도 위원회 설치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미흡하거나 유사 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위원 구성도 타 위원회에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비할 것을 촉구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문화복지시설의 중복투자 방지와 운영비 절감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되어 1991년에 제1대 지방의회가 탄생된 후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중앙집권 체제로 주민의 자치의식이 희박해졌고 재정자립도의 취약요인이 있는가 하면, 정부의 지방자치 실시의지의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는 지방자치가 '걸음마 단계에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를 비롯한 일부 구에서는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 주민의 살림을 더욱 윤택하게 해드리고자 구 재정운용에 기업경영 방식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구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2000년 결산검사 결과 연간 13억 4,300만원 정도의 재정수입을 도모하여 재정자립도 개선과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일부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지역별 주민성향에 따른 수요 예측분석이나 민간부문의 참여 유도가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다소 소홀하여 중복투자 또는 과잉시설로 이용률이 크게 떨어져 있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반성할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한 달여 간 이런 부문에 중점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몇 군데만 사례로 지적하겠습니다. 명륜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는 12억 7,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이용률이 19.1%에 불과하고, 무악동 청소년문화센터도 3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5년

7월에 개관하였으나 이용률이 저조해 민원실 서고로 사용하고 있고, 또 창삼독서실이나 낙산독서실 등도 이용률이 24%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설들은 복지 차원의 시혜적 행정이므로 일반사업과 같이 예산효율의 계량적 평가는 곤란한 사항이지만 일반적 시설 준폐기준인 40%를 밑돌고 있음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이 시설들의 연간 운영비는 청소년문화센터가 매년 1억 300만원, 창삼, 낙산독서실은 각각 4,000여 만원의 운영비가 시설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경직성 경비라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鄭興鎭 區廳長님! 구청장님께서서는 일찍이 구 살림에 기업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흑자경영을 기록하는 등 탁월한 재정운용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지적한, 예산만 먹고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이런 시설들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 구의 복지사업 투자방향은 저소득층이나 노인층 등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이외의 모든 투자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본 의원의 평소 소신은 민간 참여가 가능한 부문은 공공부문이 투자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문화복지센터 건립 시에는 민간부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시설 설치에 계획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구정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성균관대 역사문화탐방로 일방통행의 문제점과 교통체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건의합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보고인 아름다운 종로에는 역사문화탐방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공사가 비원 앞에서 종로3가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앞 도로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사동과 혜화동 대명거리 역사탐방로는 개통이 되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차없는 거리'로 지정이 되었으며 전국의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오늘이 있기까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吳鍾錫 建設交通局長님과 토목과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근무자세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대 앞 역사문화탐방로 공사는 1년 전부터 서울시가 계획한 사업으로 사업개시 전 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사중인 현재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체증입니다. 이 도로는 일방통행의 좁은 길임에도 63-1번 시내버스, 명륜동 마을버스, 성균관대학교 버스가 평균 2~3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구간에서 출·퇴근시간 시에는 2~3분 간격으로 버스들이 운행되고 있으므로 성균관대학교에서 혜화동 로터리까지의 구간이 이렇게 심한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크므로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63-1번 버스의 운행구간을 단축하여 혜화동 로터리에서 회차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학교법인인 성균관대학교에서 300원의 운임을 받고 버스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버스의 영업허가 경위를 밝혀주시고 지금과 같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성대버스의 운행 중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꼭 운행을 하여야겠다는 성대 교문에서 학교 교내만 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교통체증도 해소하고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상인들에게도 웃음과 희망을 주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성균관대학교 관계자와 성대 학생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서울시에 건의하여 역사문화탐방로 공사가 16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여 '아름다운 거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주었으니 학생들은 혜화역에서 성균관대까지 10분도 소요되지 않는 거리를 잘 활용하셔서 데이트코스과 건전한 거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고 성대 마을버스노선의 폐쇄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은 학생회와 학교측에 강력히 요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서울시에서는 명륜3가 유림경로당을 매입할 것을 관계공무원에게 건의하여 관철시키기 바랍니다. 역사문화탐방로 공사를 시행하고 준비할 때 존경하는 洪起瑞 運營委員長님과 本議員은 성균관대학교 총장을 면담하고, 총장께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꼭 유림경로당을 매입하게 하셔서 성균관대학교 담을 끼고 우회도로를 개설해 신설된 도로와 연결시켜야만 교통체증이 해결된다고 강력히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놓고, 시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하다보니 성대 좌측 편에 조성되고 있는 보행로가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 구간이 일방통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대 정문에서 30m 구간은 양방향 차도로 조성된 관계로 이 좁은 골목길에 일방통행에서 올라온 차와 신설도로로 우회하는 차가 엉켰을 때 이곳은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1m~1m50cm도 안되는 보행로가 좌측도로에 조성되다보니 주민들이 나오셔서 수십억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것도 공사라고 하고 있다고 항의하고 공사를 못하게 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서울시와 성균관대에 건의해서 유림경로당을 조기에 매입해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회도로 개설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정부는 주민자치 시대에 걸맞게 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도 동사무소를 주민문화복지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노후되어 신축한 동사무소만 1990년 이후 청운동을 비롯하여 8개 동청사를 신축했고 최근에는 교남동을 비롯한 5개 동의 동청사 신축공사가 완료되면 주민문화복지센터로 운영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혜화동 동사무소는 1965년에 건립되어 종로구에서 가장 노후된 건물로 주민문화복지센터로 운영하는 데는 부적합한 건물입니다. 3층에 있는 혜화어린이집은 장마철만 되면 누수현상이 심해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세숫대야로 받아내는 실정입니다.

상업지역인 해화동사무소의 부지를 비싸게 매각한 돈으로 해화동의 중심지역에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한다고 해도 돈이 남는 상황이므로 해화동사무소 청사가 주민을 위한 주민문화복지센터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화동청사 건립계획을 수립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에 대한 종로구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화초등학교 이전 부지의 활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종로구 명륜1가 1-27번지에 위치한 해화초등학교는 토지가 4,389평, 건물이 455평인 종로구에서 자연환경이 가장 뛰어난 명당 자리에 위치한 해화초등학교가 해화여고 자리로 2002년도에 이전을 하고 나면 본 의원이 3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종합예술고등학교나 종합기술학교를 유치해 해서 떠나는 종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아름다운 종로를 만들자고 수 차례 구정질문을 하였고,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도 지역주민들께서는 성균관대학교 기숙사가 건립된다는 등 유연비어를 믿고 있으니 구청장님의 확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했던 종합예술학교나 종합기술학교를 유치할 것인지, 성대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기숙사를 짓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종로구에서 매입을 해서 구립 종합운동장으로 건립을 해서 구민의 다양한 체육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吳弼根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千相旭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相旭議員 千相旭議員입니다. 앞서 질문하셨던 동료의원님께서 아주 훌륭한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동료의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본 의원의 인사말씀으로 같음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날, 바로 어제입니다만, 동료의원께서 주차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그와 비슷합니다만 각도가 좀 다르고 본 의원

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종로지역에 보면 아침에 자고 나서 보면 자동차에 스티커가 많이 붙어있습니다. 주차단속예고장이란 것인데 이 종로구청장 명의로 된 예고장이 주로 기록된 시간을 보면 23~24시 사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차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압차량이 진입을 못하는 그런 보도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확대단속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해결돼야 할 사항들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로구에도 주차장특별회계가 한 삼백 몇 십억이 있고 현재도 180억이 남아있는데 그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각 동별로 대체적으로는 골고루 배정이 돼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수요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항차 그 예산이 단 십원도 투입이 안된 그런 동도 있습니다. 물론 그 동이 공시지가의 산정이 현저하게 낮게 측정됐으므로 토지매입이 불가능한 그러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간에 이 주차공간의 확보 없이, 아무런 대책 없이 단속만 확대한다면 현재 생활필수품이 되어 있는 자동차를 집안에 끌고 갈 수가 없고 우리 종로구민의 생활이 고통 속에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대책 없는 확대단속은 졸속행정이며 우선 주민들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 투입이 안되고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 이겁니다. 예를 든다면 시간대별로 도로 연변을 교통 소통량이나 이것을 엄밀히 측정해서 시간대별 주차를 허용하는 지역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이와 관련된 질문은 공시지가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 대개는 종로의 중심지역입니다. 중심지역의 지가산정이 잘못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 지가

산정을 상향조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새로운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고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래 전에 제가 초대 때 얘기인데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종로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현행법으로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중심지역은 항상 주차권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제가 요구한 바 있는데 그로부터 78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아직도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구청 측에서 한 발자국도 전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러한 공정성,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끌고루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정독도서관이 화동 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1만 20평정도 되는데요 그게 언덕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하공간을 사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예산도 얼마 안 들고. 그래서 본 의원이 초대 때 정독도서관을 활용하자는 제안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잘 되지를 앓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현재 우리 鄭興鎭 鐘路區廳長께서는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고 행정적으로도 탁월하고 거기다가 또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우리 盧張鐸 副區廳長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주차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하나 해결함으로써 우리 鄭興鎭 區廳長께서 그렇게도 갈구하는, 우리 주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고 싶은 그러한 구청장이 되고 싶다는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안 되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의 질문은 우리 삼청로가 경복궁입니다. 경복궁길이라고도 하는데 이 삼청로길을 역사문화탐방로를 겸해서 '걷고싶은 거리'로 조성을 했습니다. 2000년 초에 시작해서 연말에 완성을 했는데 물론 시비 36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이 아름다

운 거리 조성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걷고싶은 거리를 이름 그대로 보행자 우선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해야 할 그러한 도로가 도로시설 이후에 불필요한 시설 때문에 한 50대 중반의 여인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돌부리에 넘어져서 그 부인은 혼자 사는 부인인데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만 새벽에 청소를 하러 나가다가 돌부리에 채여서 인근에 근무하던 경찰관이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현재는 돈이 없어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부인의 부주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소포석이란 돌이 있는데 그 돌을 잔디 위에다가 박아 놔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가보니까. 그 소포석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당초에 공사를 할 때는 그 돌이 지면과 평행으로 박혀있었는데 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뛰어다니고 하다 보니까 돌출이 됐습니다. 현재도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보강공사를 했습니다만 그 돌부리에 채여서 대퇴부에 골절을 크게 당했습니다. 이러한 공법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혹시 동료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시간이 나시면 가보세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관련 공무원에게 묻기도 하고 지금은 퇴직하고 안 계신 분도 계시고 한테 당초 서울시에서 나온 시방서대로 우리 시행 측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라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2000년 10월 말경에 구청 측에서 저에게, 제가 명예감독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사업이 있으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됩니다. 명예감독관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그래서 제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단서를 붙일 때 이 네 가지 사항이 시정이 되면 본 의원에게 통보를 해달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관계공무원은 저를 수없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저를 만나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쪼록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하고 요구된 사항들이 시정도 안되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청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굉장히 억울

한 환자에게 우리 구청에서 도의적인 면에 있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공법상 이권 잘못된 설계입니다. 잘못된 설계를 하루바삐 시정해서 다시는 이러한 제2의 희생자가, 이러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그 소포석이란 돌을 뽑아내야 합니다. 잔디하고 돌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잔디의 성장을 막고 보행자에게 엄청난 위협을 주는 이러한 소포석 공법을 하루바삐 수정해서 이것을 제거시키고 보강공사를 해주시기를 제가 강력히 요구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제가 산에 있는 소나무가 왜 가로수로 활용되느냐? 그것도 엄청난 고가로 활용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내용과 예산과목에 대한 내용들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관련 국장께서 어제 전화 상으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以煥 千相旭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洪承台議員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承台議員 洪承台議員입니다. 친애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종로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며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아름다운 종로 건설에 매진하기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鄭興鎭 區廳長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만 종로구민과 여기 계신 여러분의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충만하고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같이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돈화문 걷고싶은 거리 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미 세계 시장에서는 외국 관광객에게 그 민족문화와 접목되지 않는 상품들은 자리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문화관광사업은 고부가가치 산업

이며 21세기 유망 신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우리 종로구는 문화1번지라 하여도 모든 국민이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종로구는 그야말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600년 고도의 서울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284개의 뛰어난 문화유산이 가장 잘 보존되고 살아있는 곳이 바로 종로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창덕궁에서 종묘로 이어지는 돈화문 거리는 8년 전 국악의 거리로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창덕궁과 종묘의 건축예술은 세계인들이 찬양하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뛰어난 문화유산이 종로 중심지, 곧 돈화문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지난날 세계에서 으뜸가는 문화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곳 창덕궁과 종묘로 이어지는 돈화문 거리에는 우리 민족의 일이 담겨 있는 한국 문화를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할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세계적 명소로 이 지역을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상 말씀드린 이유는 세계적인 명소인 돈화문 거리를 해방 이후 56년 동안 방치하여 종로의 중심지인 돈화문 거리가 가장 낙후된 거리로 전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기 1대 때, 2대 때 이 거리에 대해서 항상 구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까지도 이 지역을 와보시면 알지만 오후 6시면 지방 촌구석보다도 더 낙후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거리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8년 전부터 국악의 거리로 명칭하여 이곳 지역 주민과 인간문화재인 국악인 여러분과 뜻을 모아 매년 국악축제 행사를 하고 있으나 거리 조성이 안되므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악축제 행사에 鄭興鎭 區廳長님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하면서 36억 예산으로 종로3가와 돈화문 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여 도시경관 정비 및 가로환경 정비로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보행권이 인정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탐방로 거리, 축제 공간 거

리, 국악 관련 전통문화를 되살려 돈화문 길을 조성하여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악의 거리, 종로3가 극장가의 거리로서 전통과 현대 문화가 조화되어 이 지역이 활성화되고 변화한 거리로 탈바꿈된다는 기대로 지역 주민들은 희망에 넘쳐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역은 종로에서 천대받는 이러한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와 같은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돈화문길 견고싶은 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리 조성사업의 취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유해업종인 자동차 카센터, 정비업소입니다. 종로3가에서 돈화문 길까지 많은 업소가 있지만 이와 같이 이 견고싶은 거리의 취지에 저해되는 업소는 8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사를 볼 때 교통지도과에서 이 카센터나 정비소는 등록허가를 사전에 해줬습니다. 또한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 점용 사용료를 징수하므로 생업에 지장을 줄 수 없다 하여 8개 업소에 주차통행을 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보는 지역 주민들이 이 공사 현장을 보고 근본 취지인 견고 싶은 거리의 기본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견고 싶은 거리의 그 유해업소 앞 도로를 자동차 수리 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볼 보듯 뻔한 것이 아니라며 항의를 합니다. 이 업소 장소는 자동차 2대가 들어가 수리를 할 수 있으며 좀 큰 업소라 할지라도 3대밖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이상의 수리는 도로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견고싶은 거리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한다고 하니 아침 일찍 주민들이 이와 같이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드리겠지만 이와 같은 거리에는 아침이라 지금은 문을 닫았어요. 이 도로에 놓고 이 자리에서 자동차 수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견고싶은 거리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8개 업소의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제가 과거 '92년도에 종묘 뒤에 문화탐방의 거리라고 해서 종묘 뒤를 거리조성을 했습니다. 현재 문화탐방의 거리가 아니라 그곳은 자전거 주차장이고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구청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할 때 이 지역이 정말 명소의 거리가 될 수 있겠는가?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 도로에 집행부인 구청에서 돈화문 견고 싶은 거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 업체를 2001년 12월 공사준공까지 이 8개 업소에게 등록 허가를 취소하여 이전하도록 하여줄 것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8개 업소가 여기 견고싶은 거리를 조성한다니까 주민들한테 들었지만, 견고싶은 거리를 조성한다니까 이전 변두리 같은 곳으로 이전을 해야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차가 들어가게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리를 위해서 이 8개 업소의 허가를 취소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 돈화문 앞에 있는 지역은 미관지구 등 건축허가 조건이 맞지 않아 건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정도 600년 거리로 낙후된 한옥이 있습니다. 건축주가 갖고 있는 것은 30~50평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건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 저도 여기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아무리 해봐도 지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돈화문, 종묘, 창덕궁을 방문하고 이 거리를 다닐 때 낙후된 한옥, 그러한 건물을 사진으로 찍어 가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왔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을 개축 및 대수선 공사를 하여 이 거리에 걸맞는 수리를 하도록 허가하여 행복이 샘솟는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이 거리는 견고싶은 거리입니다. 그러려면 화장실과 쉼터를 조성하여야 명실공히 견고싶은 거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50~200평 정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국

악과 사물놀이 등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어 이곳을 찾는 모든 국민과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 민족의 국악과 민족 예술을 직접 느끼고 사랑하고 감동 받을 수 있는 세계적인 명소로 이 지역을 만들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150~200평의 공연장을 만들어준다면 이 지역에는 악기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연합회 분들이 공연장을 만들어주면 하루 3~4번 무료로 공연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는 주민과 상인들의 열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련법안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문화지구는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 시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문화지구 안에 있는 각종 문화시설 및 업종은 조세와 부담금 등이 감면되고 건축기준도 일부 완화되며, 유해 업종은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둔화문 견고 싶은 거리를 향후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주민 공청회에서 구들장 같은 돌을 건널목 길에 도로 포장에 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현재 공사를 보면 너무나 예산에 비해 단조로운 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사의 품질 등 관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강화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걸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걸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걸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걸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걸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적환장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의도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중복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고 아까 제가 보기에는 安載弘議員께서 우리 아름다운 종로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낙산에 많은 낙후된 아파트가 철거되고 그곳에 아름다운 공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구청장님께서도 뉴욕의 쓰레기 적환장, 재활용공장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토목공사의 건축설계는 아주 외국에 못지 않게

발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우리 종로의 실정이 참 안타깝게 쓰레기 적환장을 여러 군데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력하신 덕분에 아름다운 공원이 한두 군데 생긴 것으로 압니다. 이 지하를 굴착해서 모든 쓰레기 적환장을 한군데로 모으고 또한 쓰레기 재활용공장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창의적인, 우리 3대 1년 남은 기간동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활용기계는 제가 알기로는 200~300만 불이면 충분히 수입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함으로써 구청장님이 일하고 싶은 마지막 1년 남은 매듭을 잘 지을 때 종로의 아름다운 건설이 가장 좋은 결과를 맺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洪承台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李炯述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炯述議員 가회동 출신 李炯述議員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의 말씀이 계셨기에 저도 같은 뜻이고 해서 같음하고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옛 이야기가 된 듯하지만 1988년은 우리나라가 세계 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한해였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로 떠들썩했을 때 당시 소련 프라우다지의 기자 한 분이 현재 비원 창덕궁을 관광하고 바로 담장 옆에 있던 지역을 들렀습니다. 그 지역을 가보니 집은 쓰러지고 인분 냄새가 나고 아주 사람 사는데 가장 고통 속에 사는 이 모습을 보고 사진에 담아서 전 세계에 뉴스 특종거리로 방영한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소련 프라우다지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북한 정부에서는 신문, 방송에 연일 남한 고궁 옆에 사는 몰골을 보라 말아야! 이것은 88올림픽은 단지 홍보용이고 남한 정부가 지금까지 전 세계에 자랑하는 88올림픽은 거짓홍보용이다 이렇게 했을 때 당시 우리 종로구청에 계신 어른들도 감히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본 의원도 여기 북촌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아주 안타깝게 여겼고 통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머지않아 2002년 월드컵 대축제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됩니다. 다시 한번은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서울로, 서울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 관광객들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그 방문객이 주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지 말라고 해도 전부 종로로 몰려옵니다. 그들은 경복궁, 창덕궁 일대를 둘러볼 것이고 동대문 광장시장도 찾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종로가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묻지 않아도 그 대답은 자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같은, 이 월드컵 행사를 맞이하여 어느 부분이라도 우리 종로구에서 꼬집힐 만한 그런 것은 미리 챙겨서 다듬고 가꾸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미처 자각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뒤통수를 88올림픽 때 맞았습니다. 월드컵을 치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뒤통수 맞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본 의원은 생각되어서 청장님께 지금부터라도 2002년 월드컵 때 외국 손님들이 찾아와서 우리 종로 특히 북촌마을에 와서 이런 모습이 세계에 방영되고 할 것 같으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002년 월드컵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함께 치르는 아주 역사적인 행사입니다. 저는 다음 사실을 꼭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일본은 지금 이 시점에 월드컵 행사 못지 않게 문화행사를 결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도시에 첨단시설을 갖춘 각종 문화행사를 준비하는 데에 일본 국력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요코하마의 개항제 카니발이라든지 불꽃놀이, 국제 감각에 맞는 종합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정부는 그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는지 특히 경복궁과 비원을 관광했을 때 북촌마을을 지나갔을 때 이 모습을 어떻게 하려는지,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외교상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도 자국의 문화행사가 있게 되면 아무리 바빠도 자국 문화행사에 참여하면서 일본을 알리는 데 열의를 다하고 있는 모습을 TV를 통해

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본은 이미 자국의 문화수준을 전 세계에 알린다는 데 그치지 않고 일본의 문화가 세계적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일본 정부 높은 어른들의 모습을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이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전통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공동 개최국인 일본과 한국의 문화차이를 비교하는 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일본문화는 우리나라에서 배워간 것입니다. 우리가 반만년 5,000년의 찬란한 역사문화를 지닌 코리아, 전 세계 수준 높은 문화민족을 세계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002년 월드컵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鄭興鎭 區廳長님!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한 특별한 문화적 조치를 우리 종로구가 맡아서 모든 문화부분을 우리 종로가 가꿔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아울러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요즘 외국 관광객의 추세는 경복궁, 비원, 창덕궁 이런 잘 가꾸어진 고궁도 봅니다마는 틈만 있으면 각 동네에 깊숙이 사람 사는 모습을 찾아 들어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서울시, 종로구청이 함께 1,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북촌가꾸기에 열의를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2002년은 불과 1년이 안 남아 곧 닥쳐옵니다. 그 관광객들이 비원과 경복궁 사이를 지나다가 북촌마을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세계에 홍보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을 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셔서 전 세계 속에 종로를 자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종로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이 자리를 빌어서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김치가 하도 좋다고 하니까 기무치라고 해 가지고 이름을 자기 이름인 양해서 포장을 해서 세계에 다시 역수출하고 있습니다. 남의 문화를 자기 것인 양하는 것도 나쁘지만 이것을 타해서만도 안됩니다. 현재 우리가 좋은 문화유산도 가지고 있으

면서 잘 다듬고 가꾸어 이것을 관광 자원화할 것 같으면 종로구 구정살림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88올림픽을 잘 치르고 많은 부분에 흠집을 당했습니다. 이번 2002년 월드컵 때는 지난 잘못이 다시 안 일어나도록 종로를 전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종로, 살기 좋은 종로의 모습을 세계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인사동, 경복궁, 창덕궁, 종묘 이 일대를 하나로 묶어서 종로 문화특구로 추진하여 종로의 옛모습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청장님 뜻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 일대 주민에 대한 문화 소양교육과 친절운동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명실상부한 손님맞이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 종로의 돋보인 모습이 전 세계에 알려진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북동, 종로구로 연결되는 성대 뒷편의 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千相旭議員님께서 바로 이 장소에서 한번 질의했던 것입니다. 지금 동십자각에서 총리공관 뒤로 지금 차량이 막혀서 평상시 차량통행이 어렵습니다. 가회동 감사원에서 안국동 지하철역을 건너서 낙원동을 가려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낙원동 건너가는 데 보통 이삼십분 걸립니다. 제가 택시를 거기서 타고 건너가는데 이천 몇 백원 나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고통받는데 성북동 그 너머에 있는 차량을 원래 도로도 없던 여기에다 뚫도록 1996년도 가을에 여기서 협의를 해준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종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신경을 쓰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북촌주민들이 지금 고통을 엄청 받습니다. 만약에 2003년 7월에 개통되어서 그 차량마저 합쳐지면 삼청동 주민, 가회동 주민들은 교통지옥 속에 산다고 봐야 할 겁니다. 차를 가지고는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기왕이면 그렇게 집단민원이 생기는 부분을 주민들과 함께 협의 요청할 때 한번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千相旭議員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정독도서관 지하 넓은데 주민들 활용공간으로 하자는 데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재동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해서 주민들 주차난을 해소해달라고 여러 차례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千相旭議員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특히 청장님은 밖에 가면 가장 힘있고 능력있는 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치 일번지 구청장으로서 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왜 하필 재동초등학교 주차장 하는 데는 신경을 안 써 주시는지 그 지역 출신 의원이 미워서 그럴 것 같으면 오늘 이후부터 제가 잘 보일 테니까 힘 좀 쏟아 가지고 주민고통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도 역시 이 장소에서는 구정질문을 몇 번 드렸던 것입니다. 진행이 안되어서 다시 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원서공원 야외혼례식장 개설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바로 이 장소에서 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린 내용이기에 소상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비원 담장 옆 원서공원에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혼례식장을 마련하여 고유문화 전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전통 혼례식장을 개설하면 거기에 고건 시장님께서 3개 TV로 계속 방영해주신다고 했어요. 무료로 전통혼례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말 한두 필 사 가지고, 시장님한테 사달라고 하든지 청장님이 사 주시든지 말 타고 가마 타고 피리 불고 나팔 불고 무료로 거기서 젊은이들이 예식을 치른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젊은 친구들이 우리 청장님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나중에 鄭興鎮 廳長님 몇 년 지나면 대통령으로 출마하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말 타고 가마 타고 피리 불고 나팔 불고 족두리 쓰고 전통혼례식을 젊은 친구들이 거기 와서 무료로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잔치국수 해 봐야 몇 천원 안됩니다. 그러면 결혼비용도 적게 들고 종로 자랑도 되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이런 관광명소가 있구나 해서 관광수입도 될 것이고 아주 좋은 기회인데 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전통혼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통혼례식 그대로는 못합니다. 거기에 비원에 어울리는 예쁜 한옥도 지어서 거기서 옷도 갈아입고 폐백도 드릴 수 있고 비가 오면 피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해주고 TV에 매일 방영하라고 하고, 무료로 할 테니까 서울시 젊은 사람들 와서 결혼하라고 하면 얼마나 많이 몰려오겠습니까? 청장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는데 오늘부터 마음을 바꾸셔서 본 의원이 믿게 안 보일 테니까 제발 종로 명소를 하나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한 5분 남았는데 시간에 쫓기는 몸이 되어서 나가라고 할 것 같아서, 중앙고등학교 앞에 계동 중앙로 길이 있습니다. 약 300m 되는데 여기는 대한민국에 없는 특수지역 골목입니다. 현재 6m 도로인데 보상도 없이 집을 지으면 2m를 후퇴하도록 서울시고시 181호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개인 땅을 내놓고 집을 짓는데 건축법에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고시로 2m씩 후퇴를 해서 5분지 2 정도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300m도로에, 여기 원 도로가 6m 도로 지금은 뚫려서 양쪽에 요철이 되어서 들고 날고 들고 날고 해서 외국관광객이 제일 사진을 많이 찍어 가는 골목입니다. 여기에 중앙고등학교 학생, 대동정보학교 학생, 재동초등학교 학생, 풍문학생, 주민 해서 불과 아침 등교시간 1시간대에 1만명 이상이 차하고 같이 매일 엉겨붙어 싸우고 있는 그런 골목을 외국관광객은 사진 찍어 갑니다. 돈 몇 푼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북촌마을 중심지에 있는 도로입니다. 주민의 98%가 길을 내라고 합니다. 이것을 도시계획에 선을 넣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불러다가 현장검증을 하고 책상에 앉아 가지고 책상 행정 하지말고 현장에 나가서 고통스런 것도 보고 종로가 어떻게 사는지 주민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보고 행정을 해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빨리 되도록이면 현장을 나가보고 정비를 해서 이북 TV방송에 안 나오도록 청장님께서 제발 부디 선처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되리라고 보고, 재동초등학교도 청장님 힘이라면 벌써 했으

리라고 봅니다. 나중에 대통령 나오실 때 하시려고 미루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공무원 국·과장으로는 안됩니다. 조금 전 千相旭議員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직접 나서야 되지 여기 있는 과장들 백 번 보내봐야 그 일이 안된다고 보고 오늘 질문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에 가서 오늘 제가 청장님께 드린 질문은 다시 하지 않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시면 더없이 고맙고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많은 분들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하시고 자 하는 모든 소원 다 이루시고,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李炯述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오늘 방청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승인2동 주민, 해화동 주민 여러분! 또한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질문과 경청을 위해 모두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일괄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로 합시다」하는 議員 있음)

의원 여러분! 집행부 준비과정도 있으니까 넉넉하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鄭興鎮 區廳長 關係官席에서 - 2시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4分 會議中止)

(14時05分 繼續開議)

○議長 金以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로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鄭興鎮 區廳長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鄭興鎭 존경하옵는 金以煥 議長님! 金正大 副議長님! 議員님 여러분! 연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오늘도 훌륭하신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70년 만에 찾아온 가뭄 그리고 이어서 장마 그리고 요즘은 열대야까지 겹쳐서 주무시기에도 상당히 불편하리라고 보는데 의원님들! 항상 건강에 유념하셔서 좀더 나은 종로 발전을 위해서 이끄심을 바라 마지않겠습니다. 오늘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진 점과 그리고 연일 지켜보건대 수많은 연구를 하신 결과가 아주 소상하고 상세한 그런 질문들이 많으시기에 합부로 답변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어서 제가 重言復言한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었고, 오늘도 상당 시간을 할애 받을 것을 생각하니 이 점 역시 송구스러운 생각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제가 아는 조그마한 그러한 지식도, 그리고 우리 종로 가족들이 준비한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安載弘 財務建設 幹事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시고 또 충고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제에도 나온 우리 종로구의 현안 중의 하나인 청소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색다른 문제점을 주장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증장기 대책 그리고 정화조 청소에 따른 부당요금 근절 대책 및 지도감독 실적, 대행업체 자유경쟁체제 도입, 위탁수거방식 확대에 따른 구청장의 견해, 그리고 재활용을 통한 생활쓰레기 감소 대책 등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도 낙산아파트나 청운아파트 철거부지에 대형 쓰레기 처리시설을 만들면 어떤가 하는 고견도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형 상차장을 건립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는 공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종로구의 열악한 환경도 이해하시면서도 곳곳에 그런 상차장과 적환장에 대해서도 주민 불만이 있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

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거지역 옆에 그러한 시설을 두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좀더 의원님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낙산 철거부지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감각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청운 시민아파트는 사실은 우리 중에서 가장 적정부지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역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학교 뒤편이고 해서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청운 시민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 덜 이주해가고 거기에 다시 재건축을 하고자 시에 쫓아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적으로 밝히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 올리고, 또 한 군데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무악재 고개에 있는 서대문서와 경계지역에 야산으로 되어 있는 바위산 밑부분을 지하로 해서 하는 방안도 우리가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런 대형 상차장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으로 대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런 계획이 전적으로 수립될 때는 의원님들과 본격적으로 상의 말씀을 올려서 고견을 듣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문제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문제 역시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연간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배출량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무감량화 사업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을, 음식점에 대한 주문식단체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병행해서 음식물쓰레기 양을 절감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은 모범적으로 종로 1번지 구에서 모범식단체를 우리가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주문해서 나오는 잔량을 싸주는 방법 또 음식을 공동으로 덜어

드시는 그런 식단체, 그래서 다시 다른 손님이 자신 음식이 또 밥상에 올리지 않는 그런 위생적인 종로구, 그래서 양은 적지만 질적인 맛으로 승부하는 종로구 이런 슬로건을 지금 각 음식점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우리나라의 음식문화를 개선해야만 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전부터 착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나아가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부당요금 근절 대책과 지도감독의 실적, 대행업체의 자유경쟁체제 도입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조례에 의하면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0.75km<sup>2</sup>당 1만 7,680원을 받고 0.1km<sup>2</sup> 초과 시 1,170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인 걸로 알고 있고 각 가정이나 업소에 정화조 청소통지 시 규정요금을 명시해 보내드리고 있고 계량기가 차량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어 주민들께서 조금만 관찰력이 있다고 하면 부당한 요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계량기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규정요금만 받도록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문제는 서울시의 용역 결과에 의하면 일정한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춰야 하는 업체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수거료가 상승할 요인이 있다고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업체의 난립으로 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저하될 수도 있고 대용량의 수거 위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만 보완된다면 우리 구의 여건을 고려해서 경쟁체제 도입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의견대로 위탁수거방식은 예산 절감의 측면에서나 종량제 시행의 취지로 보나 적합

한 방식이나 대행지역 의원님들께서 느끼시는 바와 같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현재 근무 중인 환경미화원 감축 문제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위탁수거방식으로서의 확대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창동, 구기동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구 평균 80%에 훨씬 못미치는 65%의 보급률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의 원활한 공급 대책과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 연료 행정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에 구정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은 2001년 6월말 기준으로 구 평균 80%는 이미 말씀드렸는데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평창, 구기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것은 잘 아시는 대로 고지대, 암반지역, 도로 협소 등으로 공사 여건이 어렵거나 공사비용이 과다해서 관련회사가 투자를 피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특히 평창동 387번지 외 5개 지역과 구기동 187번지 일대의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점도 이러한 이유가 상당히 내재되어 있고 따라서 평창동, 구기동 지역의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으로 보급률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계획된 평창동 33번지, 192번지 40가구와 구기동 24, 88번지 70가구는 계획대로 모두 금년 내에 공급 완료하겠으며 2002년에는 평창동 380번지 외 5개 지역에 대한 공급계획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규정 중 현실과 괴리된 공급관 100m당 25가구의 의무규정과 수요가 부담으로 공급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한 사항은 그 타당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구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에 건의했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 번 관련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서울시에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는 매년 평균 5~10% 이상씩을 보급하여

2004년도에는 95% 이상을 보급하는 목표로 도시 가스 사업기금 지원과 취약지역의 보급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배심원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질문은 두번째 질문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저도 외국영화를 보면 배심원제가 참으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거나 교통 문제거나 대부분 외람되지만 민도의 문제도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이 어느 정도 수준이나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수준 높은 국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모든 제반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원배심원제도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민원 문제를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덕망 높은 그런 유지들이나 학자들을 모시고 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훌륭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성동구청에서 이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보니까 세 건의 민원을 접수했는데 거기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복해서 하나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준법기관도 아니고 의결기구도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복합니다. 그래서 미해결된 상태임을 감안해서 뿐만 아니라 좀더 민원배심원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포당 얘기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민원배심원제를 누누이 말씀해 주셨는데 각종 위원회를 한번 조사해보니까 18개의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아니고 제가 조사해보니까 4개의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걸로, 吳弼根議員께서 같이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좀 다른 내용이군요. 이것은 건축민원에 대한 각종 위원회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吳弼根議員님이 지적하신 각종 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저는 이것하고 같은 걸로 알았는데 보니까 安載弘議員께서는 건축민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혼동된 것 같아서 후로 답변드리기로 하고, 다음으로 종로의 상징물인 캐릭터 개발과 활용 방안의 모색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종로의 캐릭터라고 불리울, 저희들이 차고 있는 뺏지 모양의 보신각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도안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선임 자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든 것을 제가 함부로 바꾸는 일은 저어하고 있는 성품 탓이기도 하고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제는 캐릭터 사업이 차지고 있는 막중한 그러한 비중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수용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의뢰는 아니었는데 타진해본 결과 1년의 연구 용역기간이 필요하고 예산이 약 2억원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문제와 그 기간 문제가 아니라 캐릭터 사업의 중차대한 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기본 조사를 마친 상태로 되어 있고 개발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공사의 품질관리 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전문가적 견해에서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에서는 공사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주요 공사에 대해서 책임감리제를 실시하고 주요 공정마다 기술자문단을 보내서 점검 및 자문을 받아 양질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감독을 의뢰하여 체계적인 공사 감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왕벚꽃나무와 아스콘 덧씌

우기공사 일부 두께 부족, 안전에 관한 제한사항, 하도급 실태 등은 다시 한 번 일제점검을 해서 시행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하자보수 등 관계법령에 의거 강력하게 행정조치하겠습니다. 왕벚나무가 35% 고사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자보수로 되어 있어서 직접적인 우리 구의 예산 낭비는 없었다고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安載弘議員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고 宣相善 市民行政委員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세대 이하의 다세대와 다가구주택 주차문제와 청소문제 등이 심각한 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또는 쓰레기 문제 등 여러 가지 취약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80년대 말부터 서민들에게 주택 공급의 원활화를 위해서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함께 권장한 바 있었으나 난립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해서 이를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서 이 현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건의를 하고 금년말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 전에 저희도 의원님들의 고견이나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 앞에 쌓여있는 쓰레기나 또 좁은 골목길의 주차장에 대해서 참으로 공허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종로 그리고 시민만족도 연속 2년 최우수, 우수구 이러한 훌륭한 금자탑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동네의 전경을 보면 의회의 대변자로서 공허하기 짝이 없다는 그 진솔하신 토로를 저도 가슴속으로 아주 진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종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정신이 상당히 개조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 인식되어진 것은 자기 집 앞의 쓰레기를 청소원이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청소미화원은 오로지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것이지 청소하는 일은 없습니다. 대로에서의 우리가 직영하는 도로 청소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골목까지 청소하는 청소원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기 집, 점포 앞의 쓰레기를 자기가 치우지 않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플래카드를 걸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과 쓰레기는 내가 치웁시다」 이렇게 해서 상당수의 주민들을 훌륭한 주민들을 저희들이 포상도 하고 모범 구민으로 표창도 하고 업소를 모범업소로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히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일도 다반사이고 몰래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반 문제를 아시지 못하는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골목에 쌓여있는 검정비닐의 쓰레기를 보면 구의원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동장이 뭘 하고 있는가, 구청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수많은 이런 비난을 받으실 것이고 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청장인 이전에 저도 많은 고뇌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영방송에서는 황금시간대에 TV에서 국민계도 시간으로 해서 그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계도방송을 해라, 기초질서를 지키는 그런 국민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에는 조금도 할애치 않는 이런 정부나 시의 태도에 대해서 저도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은 지방정부인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 더 많은 홍보도 하고 무인카메라도 설치하고 또 고발도 하도록 교육지책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국민정신이 이런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은 의원님과 저와 똑같은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주차장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히 千相旭 우리 상원의원님께서 말씀하

신 것처럼 특별회계가 단 한 푼도 가지 않은 동네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다 그 내용까지도 잘 짚어주셨습니다. 거기에 공시지가가 맞지 않아서 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고 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피려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의 차량대수가 이미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고 우리 골목에서 차량 한 대 보기도 어려웠던 그 시절이 옛 그제 같은데 이제 한쪽으로 세워놔도 그래도 소방차가 들어갈 만한 골목에도 이중 삼중으로 그렇게 주차를 해놔 가지고 화재가 나면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일이 흔히 있음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도 없는데 그야말로 어제 李東奎 委員長께서 지적하신 대로 게릴라식으로 가서 스티커를 발부하면 또 수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해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두려워서 아니라 우리가 국민들에게 구민들에게 그러한 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행조건이 아닌가 해서 그 점 또한 저어되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게울리 하지 않고 꾸준히 경영주차장도 확대하고 또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많은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소방도로를 확대해나가는 길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이러한 어려운 일을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수십년 간 참아왔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0여 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발전을 꾀했지만 어찌 한 순간에 배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게울리 하지 말고 이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그렇게 쾌적한 환경 종로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금관리 시스템 도입 제안과 이자수입 극대화 방안은 어떠한 것인가 견해를 말씀하시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에서 소개된 경기도 군포시의 사례를 참고로 재정효율화 시스템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한국인텔렉스와의 두 차례 면담을 우리 담당국장께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포시에서 시범으로 실시하는 것 외에는 그 정확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토대로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아울러서 우리도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소요예산은 약 1억 6,0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자수입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6월말 현재 10억 5,900만원이라는 상당한 그런 수입이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지적해주시 대로 '98년도에는 IMF가 일어나서 굉장한 이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1억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윤이 차츰차츰 떨어져서 금리인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억밖에 되지 않는 일이 되었는데 금년 6월은 이렇게 이자수익이 커진 것은 여러 가지 수익과 여러 가지 잔고가 겹쳐 가지고 이렇게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흑자를 낸 것에 대해서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더 많은 흑자를 내는 우리 종로구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동기능 전환에 따른 동의 주민조직관리 미흡 및 행정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이 고뇌해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고뇌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정례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초대 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이 점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행자부나 또 국회에까지도 많이 건의해서 이 동기능 축소에 대해서 반대해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상세히 지적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몇 통, 몇 반, 몇 호에 또 셋방에 누가 사는 누가 이렇게 화재를 만났다 이 정도까지 파악되고 있는데 이제는 통 담당도 그렇게 잘 힘을 쓸 수 없게끔 되었고 기능이 축소돼서 참으로 어렵다 이러한 문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기상조라는 것을 얘기했지만 지금 벌써 시행착오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동구가 시범구로서 예산을 20여 억원이나 타 가지고 그것을 시행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랬는데 거기에서 많은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했는데 어떤 일인지 국무위에서는 그대로 밀고 나가 가지고 행자부에서 그대로 시행을 해서 전국이 공회동기능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정책적으로 다른 단체보다도 각 동에 2명씩을 더 배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작년 연말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우리 담당직원이 굉장히 그야말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각기 두 사람을 다시 구청으로 데려오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고 저희는 일사천리 정책과 또 여러 가지 제도를 준비해서 그런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더 노력해서 동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종량제봉투 미사용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등을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4월 SBS에서 환경미화원이 규격봉투에 들어있지 않은 쓰레기를 치워주고 수고비를 받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점 역시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종량제봉투를 쓴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집에서 청소미화원이 수고비를 받는 일에 대해서 많은 신고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은 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즉시 감사실을 통해서 신속히 압행단속을 실시했고 해당 환경미화원은 이동 배치시키고 정직 3일의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집중 감사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감사결과 현장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이 재발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인 교육과 압행단속 그리고 감시원 무인카메라 설치를 통해 환경미화원 무단투기행위 목인 사례와 시민의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늘어나는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대책은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부족한 구청 직영인력과 장

비로 대형 생활폐기물과 무단쓰레기를 수거해왔으나 앞으로는 대행업체와 함께 수거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신속한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宣相善議員님께서 오래 전부터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를 치우는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수고를 하신 만큼 주민들이 우리 주민의 대변자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면서도 저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점을 보여주신 것이 이득이 아닌가 이렇게 외람되게 말씀드리면서 저도 우리 종로가족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담배꽂이를 줍고 동네에서도 쓰레기를 줍는 우리 모두가 되자. 그래서 모범이 되는 공무원상을 보여주자. 이렇게 제가 누누이 하고 있으면서 저도 잘 못하지만 제가 보이는 대로 저도 쓰레기를 줍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모두가 청소하는 즐거움을 갖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역설해오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서는 무단쓰레기 등을 치우기 위해서 전화를 해도 우리 직원들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때때로 의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과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불손한 태도를 가졌거나 또는 아직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 일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도우라는 일을 주선하고 있고 그렇게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쌓은 공적에 대해서 아까 공허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것이 무너질까봐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우리가 동시에 같이 동시대를 살면서 한가족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쌓은 그 힘든 탑을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여론광장에 허위, 과장 등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들이 게재되는 바 이에 대한 방지책은 없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피해자의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익명으로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일이 인터넷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무렇게나 자기 의사를 그렇게 올려도 되는 그러한 일이고 제가 실제적으로 알아봤더니 한 85% 이상이 거짓이 많이 실린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구정 여론광장은 그동안에 일부 네티즌들이 비실명으로 게재 가능함을 이유로 지적하신 바대로 과장하고 또 허위를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책임성과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야 의견 게재가 가능한 실명제로 2000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실명제가 아니면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여론광장 서두에 비방성 의견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됨을 그렇게 알리는 문구를 게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吳弼根議員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시설의 중복 투자 방지와 운영비 절감 방안을 촉구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센터 또 창신3동 낙산회 독서실 등 여러 곳에 대해서 실제로 답사하시고 그 이용률 저조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 문제와는 사뭇 같지는 않지만 공익이라는 것은 때때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그만 효과를 보는 일도 많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의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천만원의 주차 한 선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차 한 대를 겨우 세우는 이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십니다. 그 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이라는 큰 이름 하에 그렇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지적한 것은 저도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것이 정말 비생산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최종하지만 기억할 것은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했다는 것 그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때는 그 수요가 충분하다고 해서 했지만 또 세월이 흐르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수요가 변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가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가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시의원 시절에 이런 지적을 받는 것도 봤습니다. 서울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위원회가 있어서 몇 년이 되어도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수두룩했었습니다. 우리 종로구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18개가 어느 해인지 몰라도 작년에는 4개가 안 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같이 상의를 해봤더니 이 위원회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고 법으로 각 자치단체에 대해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십시오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정할 안건이 하나도 없으면 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한번 조사해봤더니 의원님들과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종로구의 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무슨 상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전혀 열지 않았던 이런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종로구계약심사위원회, 종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종로구북촌마을전담분과위원회 이 3개 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정보공개심의위원회, 종로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 종로구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해화동사무소 신축에 관한 건을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민한 문제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해화동사무소가 위치한 아주 좋은 그런 점에 대해서 재산가치도 상당히 여기서 실토하지만 이것이 시유재산인데 저희 구유재산으로 등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난리입니다. 빨리 옮겨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일급 비밀에 속하지만 의원님들은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사료돼서 감히 말씀 올리자면 20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우리 것이 됩니다. 그

래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매입을 한번 해볼까 해서 그 여부를 타진해봤더니 이게 수도권 특별대상 토지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 매각을 못한다 이렇게 시가 답변하고 빨리 내나라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새로운 부지를 한번 물색해보려고 알아봤는데 사오십억 원이 듭니다. 예산도 문제려니와 그 자리를 뺏기기 어려워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성균관대학교 역사문화탐방로 일방통행의 문제와 교통체증 완화대책 및 유림경로당을 매입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면 어떠냐 이러한 고견을 주셨습니다. 성균관 길을 서울에서 주관하는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차도 폭을 줄이고 보도 확장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일방통행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주민 공청회 등 많은 설명회를 해서 실시하게 된 일입니다. 63-1버스 운행단축 건은 이용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서울시와 협의 결정하겠으며, 성균관대학교 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유상운송이 인가되었으나 학교측과 협의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대책을 수립 하겠다고 지적하신 일반인을 요금을 받고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학교측에 얘기하고 시정토록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림경로당 매입문제입니다. 이 구간은 도시계획시설과 도로가 결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재정계획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투자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어려운 실정이나 추후 도로개설의 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혜화초등학교 이전부지 활용계획을 또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에서 기숙사로 매입한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혜화초등학교의 그 추진사

항을 말씀드리자면 2000년 9월과 2001년 6월에 서울시교육청 및 중부교육청과 협의했습니다. 부지 처분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 지난 6월에는 서울특별시 청소년과 그리고 자치행정과 등 관련부서와 관련해서 지원을 요청했고 향후에는 혜화초등학교 이전시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종합운동장 혹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학교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千相旭議員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차단속확대계획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해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삼청동 역시 가장 오래된 동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심각한 곳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단속공무원의 대폭 증가로 말미암아 무분별한 단속에 대해서도 걱정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점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이나 동직원 모두가 단속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더 많은 불만이 야기될 것을 저희들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임명된 단속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능별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7월 1일부터 3개월간 제도 중심으로 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지속적인 확보와 내집 주차장 갖기 계획을 적극 추진해서 주민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게 된 것은 대부분 우리 존경하옵는 의원님들이 각 동에서 그런 토지들을 앞선해주셔서 상당수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공시지가와 현시가의 차이 때문에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입하지 못하는 현실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장에게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250여 억원이 있었는데 이 예산이 화중지병(畫中之餅)이다, 소위 그림의 떡이다, 이

현 법이나 규정으로서는 돈이 있어도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데 종로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특별법으로라도 한시법이라도 현시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마이동풍(馬耳東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행정을 다루는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수많은 개혁을 해야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의원님들과 같이 공감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급히 파시는 그런 토지주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많이 알선해 주시면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돼서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정독도서관 지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서울시 교육청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거기가 주차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고 또 영원히 기억되는 구청장이 되라고 이렇게 충고의 말씀 감사히 듣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특별한 조례로 만들어서 전용할 수 있는가 이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이 있을 때는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정착이 되고 독립채산제로 되고 작은 정부로서 되고 해서 우리가 번 돈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청로 역사문화거리 조성에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명예감독관으로 맹활약 해주셔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설계한 그 지역에 대해서 많은 개선을 하게 한 그 공적을 정말 존경드립니다. 저도 여기 용어가 전문용어기 때문에 잘 몰라서 묻기도 했는데 경복궁 고궁과 조화되도록 도드락다듬으로, 그래서 건설국장한테 물었습니다. 도투락은 들어봤지만 도드락은 처음이다 그랬더니 화강석을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끔 곰보자국이 나도록 다지는 걸 도드락이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그리

고 또 보니까 버너구이 표면 그랬는데 그것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배웠는데 의원님께서도 또 소포석 포장까지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부당하다고 많이 반대했습니다. 큰 화강석을 막 수없이 놔둬 가지고 보행을 방해하고 노친네들 밤길 걷다가 다치기 딱 알맞고 그런 것을 많이 해왔는데 의원님이 노력하시고 저희도 같이 그것을 항의해 가지고 그것을 많이 옮겼습니다. 커다란 돌 옮겨 가지고 종묘도 갖다놓고 여러 군데다 갖다놔서 그런 대로 쓸 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말씀하신 소포석 포장 그것도 우리가 아까 앉아서 참 웅으신 지적이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왔습니다. 딱 넘어지기 좋게끔 해놨습니다. 그런 걸 하려면 좀 낮게 해가지고 원형을 살려 가지고 했으면 거기에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정사각형으로 뽕족뽕족 세워놔서 부상하기 알맞다. 그래서 제가 부구청장님이 행정의 달인이기 때문에 아까 여쭙았습니다. 정당한 주장이신데 치료비 물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여기에서는 시에다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해서 시에 한번 얘기를 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포석 포장 그것에 대해서 없애달라고 우리가 시에 그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洪承台 前 議長님께서 누누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 해주신 대로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고 또 이제 월드컵을 한일 양국에서 열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문화의 대결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우리 문화를 답습한 문화가 태반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우리보다 더 잘 관리하고 경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저는 달갑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세계상품은 민족문화에 맞게끔 되어야만 가장 세계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돈화문길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시에서도 많이 듣고 저희들이 설명도 들곤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예산관계로 종로구간만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을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이 드디어 다 나와 가지고 우리 구간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국악로 그리고 극장의 거리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지역만큼 대한민국에서 천대받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굉장히 서운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학창시절에 그 동네를 많이 갔는데 와룡공원을 비롯해서 서울에서는 주거환경으로 참 좋은 지역이었는데 지금 어찌보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지역이 되고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도를 차지한 많은 자동차 정비업체로 말미암아서 더욱 어둡게 되고 혼란스러운 동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가지고 국악의 거리로 만들고 해서 저희가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탐방로를 만들면서 150평 내지 200평의 그런 국악 한마당을 할 수 있는 그런 폭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국악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차도 구간의 약 160평 규모의 공연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건널목도 깨끗하게 점토벽돌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그렇게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순라길에 대해서 정말로 통분해 마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간부회의 때마다 그것을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순라길을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장과 쓰레기 적환장화 해있는 그곳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동장이 거기서 노력을 해서 이번 보고에 의하면 주민 스스로 그런 감시단을 발대해 가지고 2인 1조로 자전거로 순찰하면서 고발하고 적발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우리 구청에서 건설관리과로 하여금 수시 잘 감독하고 단속하도록 해서 깨끗한 순라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돈화문로 주변의 낙후된 한옥을 개축 및 대수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

습니다. 저희는 이 소규모 필지의 낡은 한옥들이 가장 많은 구 중 하나일 것입니다. 현행 건축법상 신축이 어려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은 여건이 어려운 지역이라고 해서 특례를 주지도 않고 모든 지역 모든 주민에게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구청장 재량으로 지역 여건이나 형편에 맞게 적용할 수 없어서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행정 체계가 천편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는 개탄하고 있습니다. 특성상 어느 지역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특례법이라든가 그런 융통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제주도나 어떻게 종로1~4가동하고 같으나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서울시나 여전히 그러한 천편일률적인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악법도 법이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다가 이 돈화문로를 문화지구로 지정할 계획은 없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지구 지정은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조례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시설업종 등이 밀집된 지역을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자원 보존을 위해서 서울시장이 문화지구로 지정하면 구청장은 이에 대한 세부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인사, 관훈지역이 전국 최초로 문화지구로서의 지정을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 문화지구지정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역사문화탐방로 조성공사 등이 완료되면 매년 국악로 문화축제와 전통국악악기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돈화문로와 현대연극문화의 메카로 세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대학로 등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문화지구 지정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李炯述議員님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먼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현명한 생각을 가져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저희도 모든 간부들이나 직원들에 대해서 보이스코아웃의 슬로건인

미리미리 준비하자 이 정신을 누누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마음에 들게끔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일이 많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저희도 역사문화탐방로를 해야 한다고 여러 번 그런 설계를 해서 시에다가 올렸지만 마이동풍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까지 수궁하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좋은 일이다, 해야 한다 하면서도 그렇게 빨리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하기 시작해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인사동 차 없는 거리를 하는 데만 해도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시에서 절대 허락을 해주지도 않았고 경찰청에서도 안 해줬습니다. 우리 열의로 드디어 3년 만에 인사동 차 없는 거리가 만들어지니까 일요일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모든 관계당국에서 깜짝 놀라는, 급기야는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들이 반드시 관광코스에 들어가는 것이 인사동이 됐습니다. 거기의 골동품상, 화상, 여러 가지 서화, 물품, 전통음식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 차 없는 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대하는 소수보다도 대승적인 차원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낙원동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자고 하니까 바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인사동의 대성공으로 말미암아서요. 아니, 그 이전 관철동의 차 없는 거리도 쉽게 해줬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얘기를 해도 시나 정부에서는 마이동풍이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월드컵 문화의 대결에서 종로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더 의원님 지적대로 서울시에서도 미리미리 준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옳으신 말씀이라고 공감을 하면서 우리 구도 미리 준비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도 좀더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준비되지 않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께서 특히 북촌문제에 대해서는 북촌이라는 호를 얻을 만큼 정말 10여 년에 걸쳐서 더 머리가 아예 지시도록 노력을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만큼 큰 공적을 남기셨는데도 중요한 것은 의원님도 실망한 점이 적지 않으시리라고 믿지만 반대민원이란 것이 있어 가지고 또 어렵게 되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최근에는 희망에 따라서 한다는 그런 공색한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고 지금 조사를 끝마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주장하는 북촌의 아름다움,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 한옥촌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정부가 좀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동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서 우리 아름다운 전통을 살려나가는 것이 저희의 소망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이 점에 대해서 게을리 하지 않고 꾸준히 건의하고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는 인사동길, 고궁길, 왕궁길, 북촌길, 대학로, 경복궁과 대명거리, 돈화문길, 경복궁길 2차구간이 금년 10월말에 완공되면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등 궁궐과 인사동, 대학로, 북촌 같은 명소를 포함해서 종로구의 명가, 명품거리를 연계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관광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고 더 개발할 곳이 있다고 하면 더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적해주신 원서공원의 전통혼례 문제는 옳으신 의견이십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제공해서 덕수궁에서만 시행되던 수문장 교대식을 창덕궁에서도 지금 재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1만세의 날, 종로거리 축제, 인사 전통문화 축제, 국악로축제 등 지역축제를 좀더 내실있고 규모를 키워서 관광종로, 관광한국을 위해서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지금 야외전통혼례식장 문제는 북치고 팽과리 치고 피리불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씀하시고 그 아름다운 광경을 지적도 해주시고 이런 거 하면 구청장이 대통령도 댈 텐데 그러면서 대통령을 두 번이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인물이 못되고 더 공부를 해야 하고

또 이것이 천기누설이 되면 큰일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조크의 말씀을 올렸고,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현대 측에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지분문제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안끼리 여러 가지 재산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또 알아봤더니 시유지가 57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해서 계속해서 상속지분권 문제 등이 해결되는 걸 보면서 현대 측과 협의해서 그렇게 시행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은 말도 두 마리쯤 산다고 하는데 마구간은 의원님 덕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계동길은 10m쯤 확장해줬으면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사해보니까 우리 구가 2~3m 되는 도로가 산재해 있습니다. 어쩌면 일반인들이 보면 6m쯤 되면 양호한 편이다 하는 평가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로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하실 수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계동길 확장에 약 40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년 이상된 종로구 내에 장기 미집행 도로만도 89개나 되고 따져봤더니 예산이 1,700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당장 2004년부터 도로를 개설하든지 보상해야 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00억이란 예산을 어디서 구해야 하는가 하는 이것이 참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로 이미 도시계획도로도 해제해야 할 그런 곳이 많은데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하는 그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는 한편에 재원 확보, 그리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재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아시다시피 학교에 영구시설을 할 수 없다는 그 조항 때문에 해오지 못했었는데 2000년 9월 23일에 그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동초등학교에 협의를 해보니까 그 학교를

새로 건축하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좀 기다려달라고 해서 지금 협의가 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그 건축문제와 더불어서 저희가 담당자로 하여금 이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 그런 곳이 있는데 신문에도 이미 나왔지만 그곳에 주민을 위한, 학교를 위한 수영장을 만들어 주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상당히 큰 예산이 드는 그런 사업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런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우리가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 지루하셨죠? 존경하옵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시종일관 높은 자리에서 꼼짝 않고 앉아서야 하는 우리 金以煥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참으로 저의 긴 답변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개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훌륭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제가 알기로는 주로 쓰레기, 주차 문제, 건축, 복지, 행정, 문화 등 세세한 어느 한 곳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시원하고도 훌륭한 답변을 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이 법률이나 규정상 되어 있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예산문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빨리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될 수 있는 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살기 좋은 아름다운 종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민선2기도 의원님들과 제가 마찬가지로 1년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대개 저에게 고언의 말씀을 해주신 것은 우리가 쌓아온 금자탑도 좋지만 마지막 남은 1년여의 임기를 어떻게 하면 정말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주민의 삶을 위한, 그리고 복지향상을 위한 우리가 될 것인가를 고민해달라는 주문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동안에 의원님들 10주년과 제 구청장 임기 6년 이 모든 노하우를 총집결해서 그 동안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종로구의 회가 되고 종로구청이 되었습니다. 우리 나름대

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표현해도 하나도 부족한 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현재 경제여건이나 정치상황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감안해서 우리 구민이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복지 종로 건설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이끄심과 더불어 열심히 일해서 임기 내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어제, 오늘 고귀한 그런 여러 가지 훌륭한 연구·검토하신 그 결과나 지적해주신 그 고언의 말씀을 토대로 많은 문제를 시정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더한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성하의 계절에 의원님들의 옥체 강건하심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우리 區廳長께서 이 자리를 영 떠나기 싫으신 모양입니다. 곧 떠날 듯 떠날 듯 하시면서 계속 한 것이 벌써 한 15분 정도 됐어요.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침착하시게 정말 우리 의원님들의 어려우신 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서 상세하게 하나하나 답변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칭찬은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가회동 李炯述議員님이 앞으로 대통령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런지 다른 의원들 답변보다도 훨씬 성실하게 하나하나 해서 너무나도 답변을 잘해준 것 같아서 우리 李炯述議員님께서서는 아마 잘될 것이라는 그런 느낌이 와집니다. 또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전례 없이 이번에는 다들어 가지고 정말 이렇게 좋은 자료, 질 높게 이렇게 질문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정말 참 우리 의회가 그만큼 발전했다는 것을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오전의 玄壽漢議員님 질문에는 청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鄭興鎭 區廳長님! 연 이틀 간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진술하고 상세하게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위해 자료수집, 정책대안 등의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내

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 채택 및 당면현안사항 회의 등의 활동을 위하여 오늘 보충질문과 답변까지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하는 議員 있음)

네. 李炯述議員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炯述議員 李炯述議員입니다. 鄭興鎭 廳長님! 세세하고 빠짐없이 좋은 답변 많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계동길 6m도로가 충분하다는 청장님 말씀이 계셨고 종로 전체에 지금 소방도로 부분이 비단 북촌뿐 아니라 종로 전체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장님께서 지금 계동길 확장문제에 예산이 한 40억원 들어가는데 종로구에 예산 자체도 없다. 이거는 집행부가 지금까지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이거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무슨 한 건이 나오면 꼭 그걸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결여됐다고 봅니다. 북촌길 도로 요철된 부분, 서울시 북촌 전체 예산 1,000억원 중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에 여러 차례 가서 이걸 해결하라고 그랬더니 돈은 주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종로구청에서 돈 걱정을 할 일이 아닌데 지금 청장님 답변은 종로구 예산이 걱정돼서 안되겠다. 그럼 서울시에서 왜 못하게 하느냐 말야. 도로가 6m 소방도로는 종로구청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종로구청에서 해결해 가지고 다 하고 난 뒤에 서울시에 자금 청구를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청장님께서서는 안되는 저걸로 본 의원은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할 수 있는 부분을 밑에서 잘 챙기지 않아서 안된다고 본인이 잘못 들었는

지, 청장님! 앞으로 이걸 해결해줄 수 있는 길을 좀 띄워서 위원회도 소집하고 여기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해주겠다는 답을 제가 받았습시다. 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하고는 안 맞으니 이 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 원서공원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종로구 소유로 등기이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한 57평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건 가능성이 좀 희박한 것으로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공원은 많은 서울시민들이 전부 올라가서 노는데 내쫓지 않습니다. 한 3분의 1정도 되는 도로변에 있는 종로구 소유라고 한다면 그 위에 한옥 건물 하나 짓는데 무슨 무게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과거에 현대건설 측에서는 거기 사람이 올라가면 무너져 가지고 밑에 사람이 다칠까봐 그렇다는데 절대로 공법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원 위에 10~20층을 올려도 까딱없는 구조문제를 아마 계산해보면 괜찮을 겁니다. 그 공원이 무너져 가지고 밑에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건 얘기가 안되니 이 점도 챙겨보시고 종로구 소유의 대지가 있다고 하면 그 위에 충분히 시설물을 갖춰서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議長 金以煥 李炯述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하는 議員 있음)

洪承台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承台議員 구청장님께서 돈화문 길의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상세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 거리에 150평 내지 200평의 공연장을 마련하기로 서울시와 결정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화장실 쉼터도 더불어 마련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제가 질문하던 중 8개의 카센터 정비업체가 준공과 더불어 철거해 주실 것을 질문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종로3가에서 돈화문 거리에는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8개밖에 없어요. 그것을 준공과 더불어 그 업체를 등록을 취소시켜줄 수 있는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번째로 아까 그 거리에는 오래된 한옥이 있기 때문에 이 한옥을 건축허가를 내서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대수선입니다. 대수선은 제가 알기로는 동의 허가를 받아서 대수선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개축이라는 것은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 애가 건축과를 다녀서 그런데 개축 자체도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수선이나 개축해주시는 것을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8개 업체에 대한 카센터 업체 취소와 그 지역에 대한 개축 및 대수선공사, 한옥이 막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대수선공사를 해서 그 거리를 아름답게 해달라는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시간에 안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以煥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서면답변으로 받고자 하는데 질문하신 李炯述議員님과 洪承台議員님! 동의하십니까?

(○李炯述議員 議席에서 - 좋습니다.)

(○洪承台議員 議席에서 - 좋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니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李炯述議員님과 洪承台議員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제11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제11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7월 7일부터 각 상임

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제4기 원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 등의 활동을 위하여 7월 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鄭興鎭 區廳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모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5時41分 散會)

○出席議員 18人

金以煥	鄭泰淳	李憲九	吳錦南
千相旭	玄壽漢	安載弘	丁炳煥
劉燦鍾	李炯述	洪承台	金福同
朴鍾植	吳弼根	洪起瑞	李東奎
金正大	宣相善		

○出席關係公務員

區廳長	鄭興鎭
副區廳長	盧張鐸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財務局長	董連浩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都市管理局長	河撤昇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保健所長	李星世